한국은행 조사 인쇄업 성장률 곤두박질

올들어 인쇄업 성장률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3년 1/4분기 광공업 성장률 조사에 따르면 인쇄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6.7%를 기록했다. 15개 광공업(제조)종 평균은 5.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신발(-15.2%), 의복(-14.9%), 가죽 및 모피(-14.4%), 섬유(-9.1%), 인쇄 및 출판(-6.7%)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산업용기계(13.2%), 전기전자(8.6%), 비금속광물(8.6%), 운수장비(7.0%), 철강(4.4%), 음식료품(2.4%) 등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인쇄업종의 경우 2002년도에 6.7%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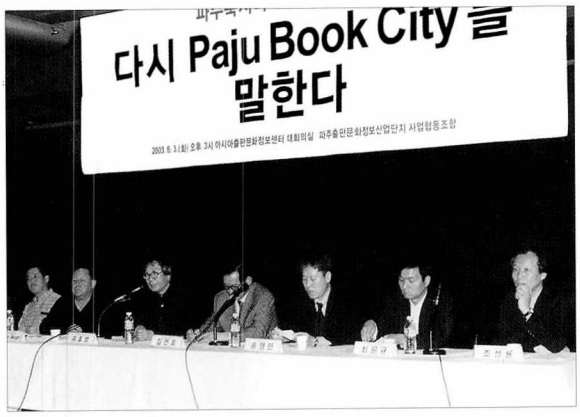
서울시스템즈 이마젠코리아 제휴

전자출판, 문화미디어 솔루션 전문업체인 서울시스템(대표 최종표, www.ssc.co.kr)은 컴퓨터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인 이마젠코리아(대표 이상진 www.imagenkorea.co.kr)와 업무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해외에 디지털프린팅 솔루션인 썬더스톰-립을 독점적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통해 서울시스템은 전자출판 및 광고물 시장에 이마젠코리아의 디지털프린팅 솔루션을 추가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마젠코리아가 최근 개발한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인 썬더스톰-립은 콘텐츠 수집과 그래픽 작업, 조판, 교정 , 인쇄, 제본에 이르는 과정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프로페셔널 버전과 일반버전이 사용자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마젠코리아는 컴퓨터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로 1997년 창업해 1999년 전라북도 벤처지원업체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과 창의적인 사고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

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 개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6월3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파주북시티 도시건축 한마당('다시 파주북시티를 말한다')을 개최했다. 파주북시티 건설 및 완공 후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중간점검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각 부문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단체 및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주제발표는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대표) 파주출판도시 협력 코디네이터의 '파주출판도시 여정에서', 플로리안 베이겔 북런던대 교수의 '파주출판도시 진행을 돌이켜보는 방문을 앞두고', 이건복(동녁 대표) 파주출판도시 건설본부장의 '파주출판도시 건설 과정과 앞으로의 할 일'의 순으로 이뤄졌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파주북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김언호(한길사 대표), 송영만(효형출판사 대표),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최문규(가아건축 대표) 등의 업계 대표들과 건축전문가들간의 대토론회가 이어졌다.

서울 북 인스티튜트 개원

미래의 출판인재를 양성할 '서울 북 인스티튜트' (가칭)가 내년에 문을 연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홍지웅)는 지난 99년 6월 설립한 산하 교육 기관 '한국출판아카데미'를 2004년 3월부터 확대 개편, '서울 북 인스티튜트'로 이름을 바꾸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특히 약 10억원에 달하는 문화관광부의 공식 예산지원 아래 현업에 종사하는 출판인의 재교육 및 신규 출판인 양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 기관 원장으로 내정된 송영석 해냄출판사 사장은 "10개 교육과정당 30명씩 연 2~3회 커리큘럼을 운영해 연간 1000명의 출판전문인력을 배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식 교육기관이 개원하면 그동안 출판사별로 도제식으로 실시하던 재교육이 체계화되고 대학졸업자 중심의 우수 신규출판인력을 영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선 이사장 중기인대회서 대통령 표창

김봉선 이사장

유재후 사장

김봉선(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대동사 사장이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중소기업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동문당피앤아이(주) 유재후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15회 중소기업주간(5.19~24)을 맞이하여 고 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와 경제계 인사, 협동조합 및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 발전에 공헌한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및 중소기업 지원우수단체 등 유공자 234명이 각종 훈 · 포상을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최로 1주일간 전국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주간행사는 지식기반시대 경제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 성황

"책을 펼치면 꿈이 열린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2003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 (COEX) 태평양관(1층)에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조선일보사, (주)문화방송, 코엑스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4일 오전 11시 열린 개막식에서 배기선국회문화관광위원장, 오지철문화관광부차관, 이긍희문화방송사장, 정범구 정병국 고흥길 김병호국회의원, 정진숙출협고문, 이정일출협회장, 민재기인협회장, 이심잡지협회 회장 등 정관계 및 관련업계 단체장 23명이 테이프를 끊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나라의 문화수준은 출판수준에 달려 있는 만큼 출판인들이 국가발전의 보루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판문화 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 126개사 등 18개국 167개사가 출품했다.

청주시민단체 '직지포럼' 창립

김태재 청주문화사랑모임 회장 등 충북 청주지역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25명은 5월 29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직지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은 직지찾기 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Ixpress 384 디지털 카메라 백 출시

마이크로큐닉스(주)는 최근 원샷 전용인 Ixpress96 디지털 백의 상위모델로서 4샷 및 16샷 촬영을 할 수 있는 Ixpress 384 디지털 백을 발표하고 본격 공급에 나섰다.

마이크로큐닉스는 고급 스틸사진 및 대형 이미지 촬영에 필요한 4샷, 16샷 기능을 지원하는 Ixpress 384 공급을 계기로 디지털 사진에 고객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xpress 384는 컴퓨터 연결 없는 자유로운 촬영, 전용 이미지 저장장치, DDC 회로기술 등 Ixpress 96에서 선보였던 첨단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풍부해진 색감과 뛰어난 샤프니스 및 최대 384MB의 고급 디지털 이미지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 고급 인쇄물을 위한 촬영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수의계약 계속 유지"

민주당은 중소기업 판로난 해결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보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운영제도와 관련, 민주당은 현행 연수취업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고용허가제도 시범적으로 도입,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최한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계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라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외국인근로자 운영제도와 관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 · 공익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연수취업제를 계속 유지하되 고용허가제를 시범 도입, 시장원리로 우수한 제도가 살아남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문제는 천문학적인 부지비용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발생됐지만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주 5일 근무제는 중소기업을 최대한 고려,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두고 세제상 혜택도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확대시행

기업은행이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거래기업을 선발해 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6월 9일 발표했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9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중 기업은행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깎아준다. 또 기존 워크아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원금감면도 가능하며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은행과 30억원 이상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선 대상이며 거래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 워크아웃 제도는 대기업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 문턱을 앞다퉈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우리, 하나 등 8개 시중은행들의 지난 5월 중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총 3조6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의 3조6천357억원에 비해 17.3%(6천294억원)나 적은 것이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4조원을 웃돌았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이처럼 크게 꺾인 것은 은행들이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에 대응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당초 15%로 잡았던 올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달 5%대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생 중소기업의 대출을 영업점이 취급하지 말고 본점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으며 음식 · 숙박업에 대한 대출은 아예 중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출에 따르는 은행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진공 LA에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토렌스시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출인큐베이터는 총 20개 수출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지며 오는 11월 개소할 예정이다.

수출인큐베이터는 입주기업들에게 인터넷 전용선을 비롯해 사무공간 사무용집기를 제공하며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 등의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중진공은 미국 시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등 3곳의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간은 6개월~2년이다.

(02)769-6952

하반기 인쇄업 경기 '먹구름'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인쇄업 경기가 하반기에도 극심한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물 수출도 하향곡선으로 돌아섰으며 시설투자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와 경기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체감경기와 산업단지 공장가동률은 최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1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6월중 중소제조업 체감경기는 지난해 4월 조사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5.1로 나타나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100.0) 미만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하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등 내수의 급격한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 사스 및 북핵문제 등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변동 항목별 SBHI를 보면, 생산(86.9), 내수(82.7), 수출(83.5), 경상이익(78.9), 자금조달사정(82.5)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제품재고수준은 109.7로 올해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한 누적재고량 증가로 재고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4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균가동률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중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69.7%) 및 작년 동월(75.2%) 대비 각각 0.2%포인트, 5.7%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지난 99년 5월 69.3%를 기록한 이후 47개월 만에 최저치다.

평균가동률 하락의 원인은 민간소비 급감에 따른 판매 부진과 이로 인한 재고량 증가, 투자 부진 등 국내 경기부진과 사스 발병에 따른 해외 수요 위축, 북핵문제 등 대외 경제불확실 요인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4월 중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분포를 보면 전업종에서 정상가동률 수준(80%)을 크게 밑도는 낮은 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섬유제품(63.4%),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65.5%), 가죽·가방 및 신발(67.0%), 의복 및 모피제품(67.4%) 등 12개 업종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으나 중기업은 0.2%포인트가 상승했고 부문별로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소기업(67.2%) 및 경공업(67.6%)의 평균가동률은 6개월 연속 70% 미만을 나타냈다.

중기 정책자금 지원 평가체계 전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평가체계를 현행 담보가치에서 미래가치 위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정책자금 평가표 개발팀을 구성, 올해 안으로 평가표 개발을 마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재무제표 및 담보력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중심의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평가표 개발시 업종별·업력별로 구분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 그간 제조업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업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첨단 기술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 평가의 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체험 활동이 본격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5월 국·과장급 및 서기관급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한 결과 체험자와 해당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국과장급 직원 2~3명(1박2일)과 4~5급 이하 직원 2~3명(4박5일간)이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을 방문하면서 지원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체험하게 된다.

중기청은 "체험 수기를 홈페이지에 올려 전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